

막판 '무박 3일' 유세 부동표 잡기 총력전

지방선거 D-2

민주·평화 지도부 총출동 광주·전남서 텃밭 쟁탈전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9일과 10일, 여·야 각 당과 후보들은 선거막판 부동표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경합 선거구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율도 높아 '무박 3일' 유세를 선언하는 등 막판까지 사활을 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중 더불어민주당 대 민주당 대 무소속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목포와 해남 등지에서 선 각 정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 주말과 휴일 집중 유세를 여는 등 각 당의 '호남 텃밭' 쟁탈전도 치열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선거 막판까지 호남 최대 격전지인 떠오른 전남 서남해안 벨트에 당 지도부를 집중 배치해 물리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펼쳤다. 바른미래당도 호남에서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넘어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선전을 통한 당의 호남 근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와 중앙유세단, 현역 국회의원 등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전남에 직접 내려와 격전지로 쫓히는 목포와 광양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원들도 이날 목포종합수산시장 등지에서 거리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전남에서 정당 지지율이 최고 70~80%대에 달해 전 지역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목포와 해남, 광양 등지에서는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과 휴일에 당의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했다. 또한,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지원 유세에도 힘을 모았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일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의원 당선을 위해 양동시장과 남광주 시장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바다 민심 잡기에 올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주말과 휴일 서울 등지에서 집중 유세가 펼쳐진 탓에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시장과 전남도당 차원의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는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광주 패밀리랜드·광천동 유스퀘어·충장동 등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고, 박대호 전남지사 후보는 장터 등 순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경제형 도지사로서 이미지를 부각했다.

로 순회하며 경제형 도지사로서 이미지를 부각했다.

선거 초반부터 광주와 전남·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평화당은 주말과 휴일 호남 텃밭 사수를 위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평화당은 광주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열세가 불가피하지만, 다수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해 호남에서의 풀뿌리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한다는 목표로 호남에 '올인' 했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안 원내대표 등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목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등 총력유세에 나서며 민주당에 맞불을 놓았다.

또 정의당 나경재 후보는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지평동·신가지구·월곡동 등지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등 정의당과 민중당도 마지막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한편, 광주지역 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10일부터 12일 선거 운동 종료 시까지만 잠을 자지 않고 마지막 사흘 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 '무박 3일 유세'에 돌입하는 등 대다수 후보가 2박3일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선거 막판까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벼랑 끝 승부'가 연출되고 있다.

〈박정욱·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23.65%·전남 31.73%...사전투표율 전국 최고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를 돌파하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최종 사전투표율은 23.65%, 전남은 31.73%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20.14%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그리고 광주는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애초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투표율이 31.73%(50만46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7.81%·42만4883명) ▲

세종(25.75%·5만5149명) ▲경북(24.46%·55만705명) ▲경남(23.83%·65만8923명) ▲광주(23.65%·27만72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남의 경우 22개 자치단체장 선거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당·무소속 등 비(非)민주 후보 간 경합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장성(43.7%), 장흥(38.61%), 신안(37.33%), 보성(35.43%), 광양(31.21%) 등지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남지역 전체 사전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는 투표율이 16.43%(33만6422명)로 최저였고, 부산(17.16%·50만4421명), 경기(17.47%·184만151명), 인천(17.58%·42만9112명) 등도 하위권이

었다. 서울 역시 19.10%(160만558명)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07%(39만8116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4·12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1.22%로,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9.8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투표율이 32.29%(4만8732명)로 가장 높았고, 광주 서구(24.16%·3만437명)를 기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신협, 전국 지방선거 판세 분석 ▶4면
6·13 격전지를 가다 - 장성 ▶5면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에어차이나 항공기에서 내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트럼프 내일 '역사적 담판'

싱가포르 도착해 휴식

정상회담 전략 가다듬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2일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싱가포르의 파야 레마르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싱가포르와의 양자 외교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의 양자 외교 이외에 휴식을 취하며 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담판을 할 예정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재'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싱가포르 도착 후 리센룡 총리와 양자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의제 실무회담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합의문 내용 등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의 성 김 필리핀 주재 대사, 북한 측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판문점에서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겨 협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기간 숙소로 이용할 예정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은 10일 아침부터 손님맞이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리시스 호텔에서도 검문검색이 본격화하면서 호텔 1층 로비에 금속탐지기와 X레이 검색대를 설치, 신체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주말 일정을 비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이동 상황, 북미 정상회담 준비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일에는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 '북미 정상회담 D-1'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장휘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대한민국대표 진보교육감 광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투자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장휘국 후원회장 김성호 배상

농협 355-0056-5927-73 광주광역시교육감후보자 장휘국후원회

후원문의 전화 062-529-9802 | 팩스 062-529-9807 | 이메일 hongm12@daum.net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37년 준비된 촛불교육감

장석웅

우리가 아이를 품으면 아이는 세상을 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후원방법
농협
302-1290-4824-11
예금주: 광아람 (회계책임자)

장석웅 후원회 대표 박화강
-약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한겨레신문 기자

1인당 500만원 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외국인/법인/단체/공무원 본인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자 장석웅 후원회

후원문의전화 : 010-3881-6040 광아람 (회계책임자) E-mail : 20180613j@gmail.com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 입니다.